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정책
발제자 :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4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12월 8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을 연사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북한의 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황조성이 필요하다. 중국, 소련의 개혁개방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는 체제변화를 일으킨다. 체제내부의 격심한 불평등이 확산될수록 체제변화가 촉진된다. 우리나라가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정보 유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북한주민들이 권력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 내에 유입되고 유통된 정보가 다시 외부세계로 전달되는 정보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환류체계 구축의 목적은 남북 양방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계층, 지역 간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인민반장과 주민, 보위부원과 정보원간의 소통경로를 확대한다면 전체주의 동심원인 계층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 흡수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非평양 지역과 중국 접경 지역에 정보 환류체계를 세워야 한다. 평양과 非평양 지역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리적 경계인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과 휴전선 상의 소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 정보유입 네 가지 원칙은 안전성, 신뢰성, 전문성과 지속성이다.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권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유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어야 한다. 신뢰성은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을 고려한 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가로 판단된다. 전문적인 정보 매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백색방송, 회색방송과 흑색방송 중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체제내부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다. 전체주의 계층별 맞춤형 정보를 유통시켜 맞춤 심리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유통시켜 일상생활 관련 불만을 유도할 수 있다.

■ 정보 환류체계 구축에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발적 저항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방향에서 도모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보다 중국과의 통일을 선호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북한 내에 반북친한(反北親韓)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 의식을 확산시키고 북한지도부 부패와 비리를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개혁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류 문화를 북한에 전파시켜 북한주민의 親한국화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보를 받는 대상에 따라 계층, 세대, 지역, 직업, 성별로 구분을 두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정보유입의 최종적 목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유입하여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선 통용 가능한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해야 한다. 해외 파견근로자, 외화벌이 일꾼 등 정보 흡수력이 빠른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계층을 겨냥해야 한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유입할 수도 있다. 여성들에게는 미용과 패션 등 서구문화에 대한 갈망을 촉발할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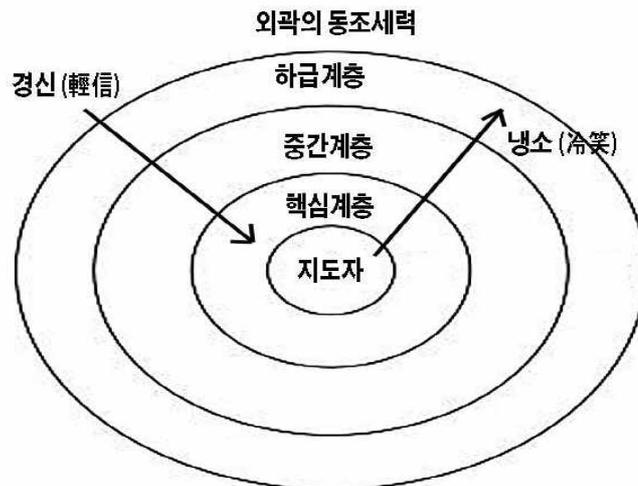
■ 북한 전체주의 사회의 본질

: 전체주의 동심원형 계층구조와 체제 변화 유도 방법

- 북한의 정보 환류체계를 구축하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이며 지도자 중심의 동심원형 계층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일명 ‘백두 혈통’ 지도자와 핵심계층, 중간계층, 하층계층, 외곽 동조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외곽 동조세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내부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도자와 핵심계층은 냉소(冷笑)주의로 하층계층을 다스린다. 허구를 사실로 착각하는 하층계층은 상부계층을 맹신(盲信)하고 경신(輕信)한다. 상부계층은 하층계층의 충성심과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며,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 북한의 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황조성이 필요하다. 중국, 소련의 개혁개방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는 체제변화를 일으킨다. 체제내부의 격심한 불평등이 확산될수록 체제변화가 촉진된다. 평양 핵심계층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유하면 지방주민은 착취와 억압

의 대상이 된다. 극심한 경제적 위기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북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외부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의 사고와 의식을 바꿀 수 있다. 종교나 시민단체가 결성되면 사적, 비공식적인 관계망이 미약하게나마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정보 유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한주민은 체제 변화에 필요한 집단행동을 거부한다. 직접 참여해서 얻기보다는 얻어진 이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필요하다. 허나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가 부족하고, 한국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북한 지도층은 공개 처형과 총살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권력의 폭력성 때문에 무의식적, 자발적으로 권력에 복종한다. 집단행동을 거부하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보 유입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 북한내 정보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의 의의

-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북한주민들이 권력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신적 지원은 북한 민주화의 기반이 되어 민주정치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무혈혁명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북한 민주정치세력 양성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다. 정보의 성격, 북한의 도발과 외국과의 협력 미흡으로 그동안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 내에 유입되고 유통된 정보가 다시 외부세계로 전달되는 정보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환류체계 구축의 목적은 남북 양방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계

층, 지역 간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인민반장과 주민, 보위부원과 정보원간의 소통경로를 확대한다면 전체주의 동심원인 계층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 흡수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非평양 지역과 중국 접경 지역에 정보 환류체계를 세워야 한다. 평양과 非평양 지역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리적 경계인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과 휴전선 상의 소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 정보 환류체계 구축 위한 구체적 방안

: 정보유입의 원칙과 정보 환류체계 구축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정보유입 네 가지 원칙은 안전성, 신뢰성, 전문성과 지속성이다.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권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유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어야 한다. 신뢰성은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을 고려한 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가로 판단된다. 전문적인 정보 매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백색방송, 회색방송과 흑색방송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입되는 정보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북한 수령체제를 직접적으로 타도하는 고위험성 정보(Intolerable Information)와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저위험성 정보(Tolerable Information)가 있다. 고위험성 정보는 북한 체제균열을 겨냥한 공격적 정보로 내부 재생산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정보유통자에게는 ‘High Risk, High Return’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저위험성 정보는 반대로 ‘Low Risk, Low Return’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내부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다. 전체주의 계층별 맞춤형 정보를 유통시켜 맞춤형 심리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유통시켜 일상생활 관련 불만을 유도할 수 있다.

- 남북한 양방향 정보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정보등급과 정보소스에 따라 유입체계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북한 소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한국에서 북한으로 역으로 투입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투입한다. 북한의 취약점을 노린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하고 그 반응을 한국으로 재투입하는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통용 가능한 저위험성 정보는 입소문을 통해 가장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다. 고위험성 정보는 북한 흐름을 잘 살핀 후 은어(隱語)를 개발하여 투입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을 직접 저격하는 정보보다 은어가 더 큰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정보 환류체계 구축에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발적 저항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살펴서 스스로 극복해내도록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보다 중국과의 통일을 선호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북한 내에 반복친한(反北親韓)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의를 확산시키고 북한지도부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개혁개방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류 문화를 북한에 전파시켜 북한주민의 親한국화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검토 될 수 있다. 정보를 받는 대상에 따라 계층, 세대, 지역, 직업, 성별로 구분을 두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계층구분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으로 구분한다. 상위계층은 김정은의 측근, 고위간부, 국영기업소 지배인 등으로 김정은과 운명공동체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건 힘들다. 연도별 탈북의 이유를 살펴보면 중간과 하위계층을 어떻게 겨냥할 지 알 수 있다. 1980년대 탈북자들은 이념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여 탈북을 결심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대에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거나 생계를 위하여 탈북 하였다. 오늘날에 북한의 중산층이지만 북한에서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탈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정의 중간간부로 이루어진 중간계층은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과의 교류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활성화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위계층은 노동자, 농민, 1인 생계형 장사꾼들로 이루어진다. 북한정권의 변화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親한국 성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운반 트럭마다 플렌카드를 게시한다면 수많은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 성장환경에 따라 북한 주민은 1세대인 항일 빨치산 세대, 2세대인 천리마 낙동강 세대와 3세대 3대 혁명, 4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와 5세대 장마당 세대, 총 다섯 세대로 나누어진다. 그중 4세대와 5세대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하여 정보 환류체계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환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네 가지로 보인다. 남북한 방송통신을 표준화한다. 멀티TV가 북한에 보급되면서 한국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텔레비전시스템위원회) 방식의 방송 보급도 가능해졌다. 현재 5가구 중 1가구가 1대를 소유하고 있다. 북한에 500만 대의 TV를 더 지원하여 남북한 TV를 동시에 개방한다면 정보 환류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KBS ‘한민족 방송’을 ‘통일 방송’으로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다. 탈북자 라디오 청취율이 가장 높은 방송국이 KBS다. ‘통일 방송’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 유입의 주매체로 활용해 북한 민주화의 중요한 기틀로 삼을 수 있다. KBS가 발신자가 뚜렷한 백색방송이라면 민간대북방송은 회색방송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제약을 북한에 라디오를 보급하여 민간 대북방송으로 보완한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북한정권의 비리와 부패, 북한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방송을 북한식 언어로 보급하여 정보 환류체계의 효과를 거둔다. 마지막으로 대북확성기를 활용하여 DMZ 대북방송을 내보내 북한 군인을 회유하는 방법이 있다. 확성기가 아닌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아이돌 그룹 노래, 스포츠 중계, 드라마, 북한 장마당 뉴스, 해외 시사만평 등을 보여

•세대별

-성장환경에 따라 5개의 세대로 구분

북한의 혁명세대	1세대(항일빨치산세대)	2세대(선리아 또는 낙동강세대)	3세대(3대혁명세대)	4세대(고난의 행군 세대)	5세대(강아당세대)
출생 시기	1910~1930년	1930~1950년	1950~1970년	1970~1990년	1990년~
규정 (20, 30대 활동기)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	6.25전쟁 참전 전후 천리아운동 주도	김정일 등장 후 1970년대 3대 혁명소조운동 주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육장애를 감거나 출생한 세대
특징	정규교육 못 받음 사상성 강함 죽을 때까지 특혜 누림	정규교육 못 받음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 시장경제 적응 못하고 말년에 고생	정기교육 받음 성장기 물질적 혜택 누려 시장경제 적응에 예민	집중적 세뇌교육 받음 국가 해체를 경감한 마지막 세대 시장경제에 빠르게 적응	세뇌교육 억하지 않음 국가 해체 우려본적 없음 시장경제를 체득한 세대
현재의 사회적 지위	대다수 사망	북한 고위 지도부 대다수	북한 중견 간부층, 은퇴 일동	북한 사회를 이끄는 핵심 세대	정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 시작
통치자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은

준다면 막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북한이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는 총 340만대에 이른다. 주민들에게 유용한 날씨, 농사, 시장 정보를 위주로 전달한다면 정보 확산 매체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인트라넷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연결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유일한 국가다.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구글이 최근 개발한 인터넷 접속 지원 프로젝트 룬(Loon)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우터넷(outer-net)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연결을 위한 장비들이 많다. 최근 개발된 장비들의 크기가 크지 않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용이하다.

■ 정보 환류체계 구축의 궁극적 목표

: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유입

- 정보유입의 최종적 목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유입하여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선 통용 가능한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해야 한다. 해외 파견근로자, 외화벌이 일꾼 등 정보 흡수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계층을 겨냥해야 한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유입할 수도 있다. 여성들에게는 미용과 패션 등 서구권 문화에 대한 갈망을 키워줄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 정보 환류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국민이 용인단결하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 계층부터 달라져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무혈혁명이 가능한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선택할지, 중국과의 동맹을 선택할지는 정보 환류체계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42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북한민주화를 비롯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유입 촉진을 UN과 함께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답변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이 결단을 내린 후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라야하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라는 자세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질문2 체제전환의 네 가지 조건 중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 체제전환은 국가가 최악의 상황에서 처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 가능하다. 북한의 시민 사회와 극심한 소득불균형 문제는 한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경제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외부 정보유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질문3 장마당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지 않은가?

답변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품목 수에 따라 40~50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장마당 자체를 상위계층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간계층을 두고 관리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는 시장이 있다. 시장을 지금까지 보완적 요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 대체 요소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대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문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방안도 있는가?

답변 노트북에 핵심코드 하나만 꽂아놓고 수십 대를 북한에 보급한다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유입할 수 있다. 정보 유입을 위한 기술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